



# 權不十年 花無十日紅

曹 斗 欽

올해 정도(定都) 육백년을 맞은 서울은 지리학(地理學)적으로 잘 잡은 명당(名堂)으로 알려져 있다. 아닌게 아니라 북쪽에 북한산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우뚝 솟아 있고 남쪽에는 남산 그 너머엔 한강이 젖줄처럼 유유히 흐르고 있다. 선인(先人)들이 오죽 풍수지리를 따져 「서울」의 터를 잡았을까 하고 새삼 감탄하게 된다.

사실 외국의 수도를 많이 방문해 보았지만 서울처럼 가까운곳에 이런 명산(名山)이 북풍을 막아주는 곳은 없다.

필자가 20여년전 신문사특파원으로서 일본 도쿄(東京)에 장기간 체류했을때 일이다. 바쁜 업무에 시달리다보면 휴일엔 산에 오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처음 얼마동안 일요일 아침이면 배낭을 메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도쿄 근교의 산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도쿄는 관동(關東)평야의 남쪽에 자리잡고 있어 가까운곳에 산을 볼 수가 없다.

날씨가 쾌청한 날이면 일본국민들이 자랑하는 후지산(富士山)이 멀리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후지산에 가려면 급행열차로 2시간이상 고속버스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도쿄에서 가장 가까운 산은 서남쪽의 오후다마(奥多磨)정도일까. 오후다마에 가려고 해도 신주꾸(新宿)역에서 1시간반가량 기차를 이용해야 한다. 관광명소인 하꼬네(箱根)도 급행을 2시간

가까이 타야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가벼운 등산만 한다해도 왕복4시간 이상 기차를 타야함으로 우선 거기에 지치게된다.

필자는 서울에 돌아와 친구들의 권유로 북한산에 처음 올랐을때 서울에는 이렇게 가까운곳에 산이 있다니 하면서 놀라고 감격스러웠다. 평창동 구기동 정릉 수유리 종점만 가면 바로 북한산 입구가 있지 않은가. 근래와서는 구과발 종점이나 북한산성 삼천리골등 서울북쪽의 등산로가 군부대의 철수로 개방되어 있다.

서울 도심에서 20~30분안에 오를수 있는 북한산이야 말로 서울시민들이 정말 고마워해야 할 자연의 혜택이다. 평소 물이나 공기가 너무 쉽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모르듯이 북한산이야말로 다른나라 수도와 비교를 못해본 탓으로 서울시민들이 그 고마움을 모른채 지내고 있는 셈이다.

수년전 도봉산에 올랐을 때 인천에 산다는 중년의 독일인 부부를 만난 일이 있다. 그들은 북한산이나 도봉산이 이렇게 서울 도심 가까운곳에 있는 것에 감탄하면서 주말마다 빠지지 않고 등산을 한다고 자랑하는 것이었다.

그뿐인가 인수봉(仁壽峰)에 가보면 바위를 타는 일본인 등산객들을 가끔 볼 수 있다. 그들은 이렇게 경관이 좋고 암벽등반의 명코스는 어디에도 없다고 극구 찬양이다.

이렇게 고마운 북한산 봉우리와 계곡도 얼마전까지만해도 취사를 하는 소풍객들이 너무 많

았다. 쓰레기를 마구버리고 음식찌거기를 태연하게 내버려 자연의 훼손은 심각했었다. 이제 국립공원안의 취사가 전면 통제되어 북한산이 많이 되살아났다.

거기에 식생(植生)의 안식(安息)과 산불방지를 위해 번갈아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는것도 참으로 잘한 일이라는 생각을 등산할때 마다 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미비한 점이 적지않다.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자연보호 “등등 캠페인 성 푼말이나 푸랑카드가 많이 눈에 띈다. 한폴더 넘겨 생각하면 이런 표지물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저해하는 공해(公害)라는 발상이 왜 떠오르지 않는지 답답한 심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서울 근교의 산 이야기가 났으니 말이지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등에 주말에 오르다보면 한때 내노라하고 권세를 휘둘렀던 분들을 많이 볼수가 있다. 현역에서 은퇴한 고관들이 산을 찾는 경향이 뚜렷하다.

왜 그들이 퇴역후 갑자기 산을 즐겨 찾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우선 바쁜 공직에서 떠나 머리를 식힐 점 건강을 위해 등산을 취미로 하는 점이 있어 보였다.

다음으로 등산이야말로 가장 돈이 안들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일 것이다. 테니스를 할려면 짝이 꼭 있어야 하고 코트를 빌려야 하는데 등산엔 그것이 필요가 없지 않은가. 또 골프를 한번 나가면 비회원일 경우 10만원 이상이 들어 경제적부담도 적지 않으리라.

그러나 필자 생각으로는 권세자들이 공직을 떠나 산을 찾는 진짜이유는 골프장에 나가 지난 시절의 대우를 받기 어렵거나 새로 권세를 지닌 동료, 후배등을 대하기 쑥스러워서가 아닐까 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중요한 공직에 있으면서 세도(勢道)를 할때는 자기자신은 항상 그러리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막상 자리를 떠나면 허전해지기 쉽고 더러는 골프장에서 아니꼬운 꼴도 보게 마련인 모양이다. 그래서 돈안들고 아니꼬운 일

도 안당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 등산을 취미로 하게되는 것이 아닐까?

옛 이야기에 권불십년(權不十年)이요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권세는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꽃은 열흘이상 붉지 않는다는 이 격언(格言)은 참으로 세속(世俗)을 풍자한 만고(萬古)의 진리인상 싶다.

등산이란 계절에 관계없이 각기 특성을 가진 운동이라 봄에는 파릇파릇 돌아나는 새싹과 예쁜꽃, 여름철의 녹음, 가을의 단풍, 그리고 겨울철의 설경(雪景)등 어느것하나 갑을(甲乙)을 매길수 없이 우리에게 새롭고 신기한 감회를 준다. 이런 대 자연속에서 혼자 산행(山行)을 하거나 때로는 마음이 맞는 친구 몇사람과 어울려 화제를 갖고 도란 도란 이야기하며 혹은 명상을 하면서 산에 오른다는 것이 얼마나 멋스러운 일인가.

흔히들 권세를 갖고 좋은자리에 있을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든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쉽고 남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여유가 없게 마련이다. 잘되면 내덕(德)이요 못되면 조상(祖上)탓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역지사지(易之思之) 입장을 바꾸워 생각할수 있는 여유를 우리들은 왜 못갖는 것일까. 서울 근교에는 정말로 아름답고 포용력이 있는 산들이 많다. 그래서 필자는 골프를 치지말라는 어느 한 분의 지시때문이 아니라 세도가들도 현역 시절에 산행을 많이 했으면 한다. 그것이 일종의 여유와 자기성찰(自己省察)의 계기요 또 공직을 물러 날때의 마음의 준비도 되기 때문이다.

▲필자소개

한국일보 편집국장, 주필, 한국신문편집인협회장  
일간스포츠 사장 역임, 현재 한국일보 상임고문